

Sector Comment

K-POP Rise & Release

2025.07.17

장지혜 엔터·미디어·음식료 02-709-2336 / jihye.j@ds-sec.co.kr, 강태호 연구원 02-709-2666

K-pop R&R 005. 소와이스? 소처럼 일하는 트와이스!

K-pop R&R은 K-pop 아티스트의 활동 성과 및 업종 내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자료입니다.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의 성과(Rise)와 음반/투어 일정 공개 소식(Release)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.

■ 트와이스(TWICE) 7/11 정규 4집 <THIS IS FOR> 발매. 7/19부터 6번째 글로벌 투어 시작

- TWICE의 정규 4집 <THIS IS FOR>는 7/11 발매 후 7/15까지 5일간 국내 누적 판매량 55.7만장 기록
- TWICE는 15년 10월 데뷔 후 10년간 국내에서만 정규 4집, 미니 14집 등 다수의 앨범을 발매하며 활발히 활동 중
- 일본에서도 정규 5집과 싱글 앨범을 다수 발매했으며 25년 8/27 일본 정규 6집 <ENEMY> 발매 예정
-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성과도 고무적. 스포티파이 주간청취자 수는 7/16 기준 1,834만명 기록(+75% MoM)
- 또한 TWICE는 7/19~20 국내를 시작으로 글로벌 투어 진행. 현재까지 발표된 일정은 23회, 70만명 모객 추정
- 전 공연 360도 공연으로 진행하고 향후 북미 등 일정 추가되며 공연 규모는 이전 대비 확대될 전망

■ 메가HP TWICE와 Stray Kids의 활발한 활동 속 저연차IP의 성장이 JYP 밸류에이션 상승의 핵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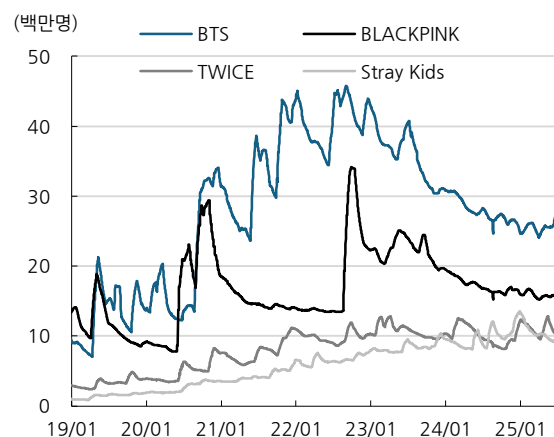
- JYP는 2개의 메가HP(TWICE, Stray Kids)가 활발히 음반과 공연 활동을 이어가며 실적 성장 견인 중
- Stray Kids는 24년 8월부터 25년 7월까지 글로벌 투어 후 25년 하반기 2개의 음반 발매 예정으로 활동 지속
- TWICE는 <케이팝 데몬 헌터스>와 협업, 예능 출연 등 콘텐츠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며 라이트 팬덤 확대도 긍정적
- JYP의 PER 밸류에이션은 컨센서스 기준 25년 17배(일화성 이익 제거 시 25배), 26년 20배로 타사대비 저평가
- 메가HP의 성장 구간 내 저연차IP의 성장 및 실적 기여 확대 시 JYP의 밸류에이션도 리레이팅 전망

그림1 TWICE의 정규 4집 <THIS IS FOR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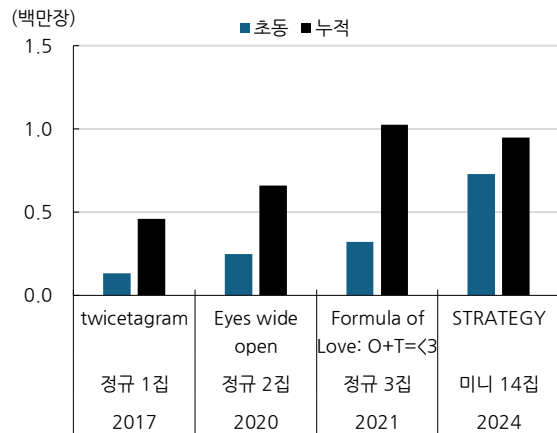
자료: JYP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스포티파이 주간 청취자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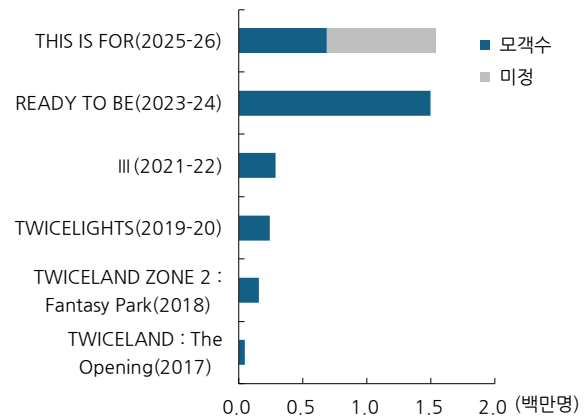
자료: Spotify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TWICE 앨범 판매량 추이(국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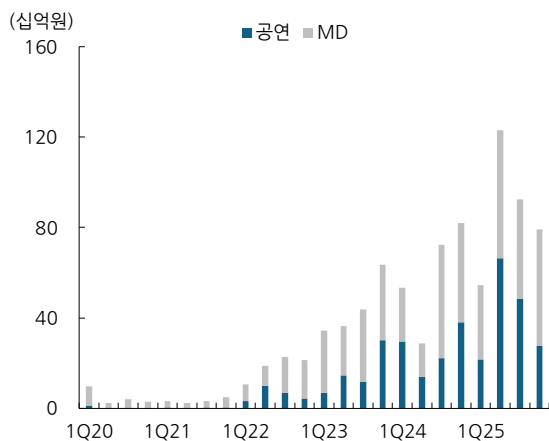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터차트, 씨클차트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TWICE 공연 규모 추이 및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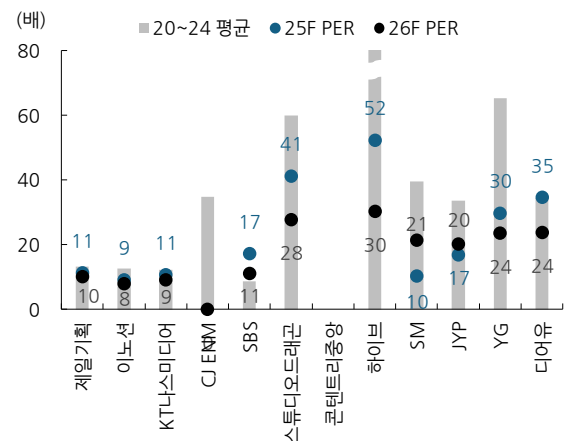
자료: Touring Data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

그림5 JYP 엔터 분기별 공연과 MD 매출액 추이



자료: JYP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미디어-엔터 PER 밸류에이션 비교



자료: FnGuide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